

# MMTIC에 의한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이정화 · 전윤숙<sup>†</sup> · 김인경<sup>\*</sup>

(부경대학교 · <sup>†</sup> 동의대학교 · <sup>\*</sup>동백초등학교)

## Differences in Ego-Resiliency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Types

Jeong-Hwa LEE · Yun-Sook JUN<sup>†</sup> · In-Kyung KIM<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up>†</sup> Dongeui University, <sup>\*</sup>Dongbaek Elementary School

(Received June 20, 2007 / Accepted August 7, 2007)

### 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lay the ground for effective guidance toward adaptive coping behavior by finding out differences in ego-resiliency in terms of personality types in the 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MMTIC).

For the study, personality types and ego-resiliency of 180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from 3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Busan were measured. The instrument for personality types was MMTIC, which was developed by Meisgeier and Murphy in the US in 1990 and standardized in Korea in 1993 by Jungtaek Kim and Hyesook Shim. In order to measure Ego-Resiliency, Block & Kremen(1996)'s Ego-Resiliency scale translated and remodified by Sungkyung Yoo(2004)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NOVA.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s: Firstly, according to the children's preference for personality types, participants' ego-resiliency scores appeared significantly higher in 'Extraversion', 'iNtuition', and 'Feeling' than in 'Introversion', 'Sensing', and 'Thinking' respective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core between in 'Judging' and 'Perceiving'. Secondly, according to function types of MMTIC, the participants' ego-resiliency score in 'iNtuition-Feeling' type showed the highest among scores in the other three types. The score in 'iNtuition-Feeling' typ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Sensing-Thinking', 'Sensing-Feeling', and 'iNtuition-Thinking' type respectively.

*Key Words* : ego-resiliency, personality types, MMTIC,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생활사건이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들

도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오늘날 초등학생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가정 및 학교에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백송숙, 2003). 실제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Tel.: 051-890-2662, ysjun@deu.ac.kr

로 아동도 성인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미현, 1996).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아직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받는 높은 성적 성취 압력과 과잉보호, 학교에서의 경쟁의식, 대중매체 등의 사회적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압력, 폭력이나 따돌림, 인터넷이나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영향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민하영, 1999).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자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방해현상이다(Vander, Sherman, & Luciano, 1985).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자아와 사회적 관계를 훼손시키게 되며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주어 가정과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애현, 1998). 또한 이러한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처하게 된다(김민정, 2005). 그러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 요인과 잘 적응하는 초등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Cicchetti와 Toth(1991) 역시 신체적·심리적으로 위협스러운 환경 하에서 발달적 이탈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개인의 기능을 이해하고 연구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최근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이다. Block과 Block(1980)이 도입한 개념인 자아탄력성은 자극 상황에 대해 아동들이 보이는 반응의 적응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즉,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과 가능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없애는 것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참여(Tellegen, 1985)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도록(Block & Kremen, 1996)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은 충동 표현의 정도와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정도를 나타낸다. 김옥선(2005)은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자아탄력성과 성격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자아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성격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성격을 명확하게 유형화하는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더욱 미흡하다. 즉,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성격검사를 통해 성격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격의 하위요인 중 어떤 것이 자아탄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담과 심리치료, 교육과 진로분야와 산업조직체내 인력 개발과 개인성장 프로그램 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기본으로 하여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된 MMTIC(Murphy- 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을 사용하여 성격을 측정하고자 한다. MMTIC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 되어 있다. 즉, MMTIC를 통해 성격의 4가지 선호지표와 4가지 심리적 기능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MMTIC 성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MMTIC의 4가지 선호지표에 따른 심

리 선호 유형(E-I, S-N, T-F, J-P)에 따라 자아탄력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MMTIC에 의한 성격의 심리적 기능 유형(ST, SF, NT, NF)에 따라 자아탄력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학교수행 및 교실생활에서의 적응, 지능, 자아존중감, 욕구지연과 충동조절 등 아동기 적응의 중요한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였다(구형모, 2000). Block과 Block(1980)은 종단적인 실험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이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을 하고,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성격이 안정적이어서 덜 불안해하며 셋째,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 학교와 사회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 있는 적응을 보이며, 다섯째, 또래관계에서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고 공감적이며, 여섯째, 유능하고 영리한 특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Rutter, 1987; Klohnen, 1996), 학업에 있어서 지적인 성취도가 높고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Hilgram & Palti, 1993). 윤현희(1998)는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비탄력적인 아동들은 탄력적인 아동들에 비해 적응상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에 의해 현실 접촉에 곤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아동들이 자신의 생활환경 속에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능력(권지혜, 2006)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지능이나 정서지능 이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하는 아동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개인적 특성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던 많은 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구자은; 2000, 김옥선, 2005; 임상희, 2005).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이 적응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 2. 자아탄력성과 성격

최근 들어 자아탄력성이 적응행동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하는 연구를 벗어나 점차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혹은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장경문(2003)은 심리적 성장환경, 즉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자아탄력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권지혜(2006)는 기질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성격이다(고은정, 1997; Klohnen, 1996). 일반적으로 성격을 연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동일한 자극과 상황에 대해 나타나는 개인들마다의 다른 반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 역시 개인의 성격특질과 적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적인 문제를 설명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이 일정한 성격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Murphy와 Moriarity

(1976)의 종단 연구에 의하면 탄력적인 아동들은 입학하기 전부터 자율성이 강하고 사회지향적이었으며, 가정 내에서 활발하게 놀이를 하였고, 새로운 경험을 찾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상당히 자기 의지적이었다. 그들은 응집력이 강하고 삶은 의미 있는 것이며,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신이 자기를 돕고 있다고 믿었다. Block과 Block(1980)은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징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 자기 확신, 정서표현의 적절성, 자기수용, 유능성, 유창성, 새로움 추구, 창조성, 영리함, 덜 불안해 함, 덜 의심함, 덜 모방함, 재확신 추구, 공감 등을 말하였다. 성인의 자아탄력성 구조를 연구한 Klohnen(1996)은 자신감 있는 낙천성, 자기확신, 개인적 적응, 이상적 자기, 생산적, 활동성, 성취, 통솔력, 대인관계의 통찰력과 따뜻함, 양육, 내적지지, 창조적 성격, 능숙한 표현, 친근감 등을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징으로 보았다.

Block(1982)의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Robin, John, Caspi, Moffitt, 그리고 Stouthamer-Lpeber (1996)는 CCQ(California Child Q-set)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CCQ를 사용하여 10세의 미국청소년들을 2년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연구한 결과, 자아탄력적인 청소년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언어표현이 자유로우며, 에너지가 넘치고 품위가 있으며, 신뢰할 수 있었으며, 허심탄회하고, 아는 것이 많았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이었다. 자아탄력성과 또 다른 특성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외향성과 성실함과는 정적으로 신경증과는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Funder & Block, 1989; Kosmitiziki & John; 1993 고혜진; 2005 재인용).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징들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은 낙천성, 자율성 및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계 등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통제감, 긍정성들을 느끼게 한다.

미네소타 대학의 Sharon(1999)은 ‘변화: 상실과 기회 그리고 자아탄력성’이란 연구논문에서 자아탄력적인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① 긍정적인 사람(Positive People): 삶을 도전적, 역동적이고 기회로 가득한 것으로 보는 능력을 개발한다.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위협이나 위협요소들에도 위축되거나 압도되지 않는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스트레스가 삶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구분한다.

②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Focused People):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기로 마음을 결정함으로써 그 가운데 일어나는 방해물이나 장애들에 휩싸이지 않도록 한다.

③ 유연한 사람(Being Flexible People): 불확실성을 만났을 때 다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자신의 감점과 약점을 깨닫고 있으며 언제 내적인 혹은 외적인 한계를 수용해야 할지도 알고 있다.

④ 상황을 재구성하는 사람(Organized People): 모호성을 관리하는데 구조화 된 접근을 꾸준히 개발한다. 그들은 사전에 미리 구조를 확립해 두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중 필요하면 재구성한다. 그들은 언제 다른 이들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⑤ 혁신적인 사람(Proactive People):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변화와 더불어 일한다. 그들은 차후 그 비슷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경험하는 중에 배워야 할 교훈들을 끄집어낸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창조적으로 자원들을 사용한다.

Sharon(1999)은 자아탄력적인 성인들이 변화를 준비하는 삶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모호성을 인정한다.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고 상황마다의 최선의 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목표와 비전, 경제적인 상황 모든 조건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둘째, 정보를 공유한다. 의사결정과 실제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슷한 변화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합류해서 정보와 경험을 나눔으로 문제해결에 집중한다. 셋째, 주변에 있는 가능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정보수집과 대안모색, 의사결정과 실행에 도움이 되는 남녀노소 전문가·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비전은 다른 사람의 지시나 요구, 물적 보상이나 격려가 없이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드러낸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성격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구형모(2000)는 자아탄력적인 집단이 성격특질에서 외향적이고 친화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유형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윤현희(1998)는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낙천적, 자율적, 능동적인 활동성을 지니며, 타인에 대해 공감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 3. MMTIC 성격유형

#### 가. MMTIC의 4가지 선호 지표

MMTIC 지표에는 E/I(외향/내향)지표, S/N(감각/직관)지표, T/F(사고/감정), J/P(판단/인식)지표가 있다. 각 네 가지 지표 중 한가지 씩 선택됨으로서 16가지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각 지표를 심리 선호 유형이라 한다.

#### ① E/I(외향성/내향성): 상호보완적 태도 또는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 지표

외향적인 태도(E)를 가진 사람은 관심을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쏟는다. 이러한 사람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부 세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향력을 증대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부단히 외부 환경의 자극을 찾아 나서며, 행동 지향적이며 때로는 충동적으로 사람을 대한다. 또한 솔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며 사고성이 많다.

내향적인 태도(I)를 가진 사람은 외부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한다. 내향성이 주로 관심을 쏟는 것은 자기 내부 세계의 개념과 관념이다. 마음 속의 개념과 관념을 분명히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일시적인 외부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개념을 더 신뢰한다. 사려 깊고 주위와 떨어져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하며, 고독과 사생활을 즐긴다.

#### ② S/N(감각/직관): 인식과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 기능 지표

감각(S)이란 우리의 감각을 통해 관찰하는 인식을 말한다. 감각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감각은 현재 일어나는 일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현재를 즐길 줄 알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관찰 능력이 뛰어나고 상세한 것까지 기억을 잘 한다.

직관(N)이란 통찰을 통해 가능성, 의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Jung은 직관을 무의식에 의해 나타나는 인식으로 특징짓고 있다. 직관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갑작스럽게 인식하는 패턴을 갖는다. 즉, 육감이나 예감 또는 창의적인 발견과 같이 돌발적으로 의식에 떠오르기도 한다. 직관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하여 감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게 한다. 직관적인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현실을 보기보다는 가능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상상적, 이론적, 추상적, 미래지향적 또는 창조적인 특징을 발달시킨다.

#### ③ T/F(사고/감정) - 생활 사건들을 이성의 법칙에 따라 조화시키고 판단하는 합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사고(T)는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기능이다. 사고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과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사고와 관련된 특징을 발달시킨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며 정의와 공정성의 원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

감정(F)은 상대적인 가치와 문제의 장점을 고

려하여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기능이다. 감정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중시한다.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정 기능으로 판단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긴다. 이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친화와 온정과 조화를 바라며, 과거의 가치를 중시한다.

④ J/P(판단/인식):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 지표

판단적 태도(J)를 선호하는 사람은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계획을 잘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판단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보면 행동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목표가 뚜렷하며 확고해 보인다. TJ(사고적 판단)형은 논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반면에 FJ(감정적 판단)형은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인간적인 요인을 많이 고려한다.

인식적 태도(P)를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즐긴다. 그들이 지각하는 태도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바깥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보면 자발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적응력이 높아 보인다. 또한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에 개방적이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려 한다. 판단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반면에 인식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주어진 정보를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에 결정한다.

나. 심리적 기능 유형

심리적 기능이란 개인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그 개인의 고유한 반응양식을 가지게 하는 일관된 내재적 심리 경향성이다. 기능유형은 인식기능인 S(감각) N(직관)과 판단기능인 T(사고) F(감정)가 결합되어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즉, 인식기능 S(감각)와 판단기능 T(사고)나 F(감정)와 결합해서 ST(감각적 사고)형과 SF(감각적 감정)형을 만든다. 또 인식기능 N(직관)과 판단기능 T(사고)나 F(감정)와 결합해서 NT(직관적 사고)형과 NF(직관적 감정)형을 만든다. 결국 기능 유형은 ST형, SF형, NT형, NF형의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ST(감각적 사고)형

실질적 사실적 유형으로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고 사실과 경험을 적용하는 상황을 선호하며, 일상의 과업과 관련된 사실과 객관성을 가진 기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단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적이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환경이나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자극을 받는다.

② SF(감각적 감정)형

동정적, 우호적 유형으로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나 매일 사람들의 관심사를 접하는 상황에 잘 적응한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심사를 위해 봉사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문제 해결 방식은 결과가 지닌 사실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선호한다. 친절하고 주관성과 사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하며, 사람들에 관한 사실에는 관심이 적다.

③ NT(직관적 사고)형

논리적 창의적 유형으로 가능성에 주의를 집중하나 이론적인 개념을 발달시키는 상황에 잘 적응한다. 문제 해결은 원인과 결과가 지닌 가능성에 대해 통찰하는 객관적 분석을 통해 처리한다. 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고, 미래와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변화추구, 장기적 목적과 비전을 강조한다. 업무의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면에 취약하며,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주관대로 부정확하게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사고를 선호하므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한다(김선희, 1998).

④ NF(직관적 감정)형

열정적 통찰적 유형으로 가능성에 주의를 집중하나 사람들의 열망을 이해하는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이해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문제해결 방식은 결과가 지닌 가치의 가능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고려하여 통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또한 이들은 창조적, 예술적 표현이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과제를 선호하고 융통성이 있고 상상력이 인정되는 분위기와 학급을 선호한다(김정택·심혜숙·제석봉 역, 1995).

미국의 C. Meisgeier 박사와 E. Murphy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택·심혜숙(1993)에 의해 표준화된 MMTIC 검사를 사용하였다.

아동용 심리유형검사는 총 70문항으로 S-N, T-F, J-P척도를 위한 각 18문항과 E-I척도를 위한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은 ‘㉠’ ‘㉡’를 선택하여 답안용지에 기입하면 된다. ‘㉠’에 반응하면 E, S, T, J 중에 해당하고 ‘㉡’에 반응하면 I, N, F, P에 해당한다. 선호도 점수는 판별분석절차를 통해 얻은 항목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5·6학년생 18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MMTIC 성격유형 검사를 받은 학생은 모두 198명이었으나, 선호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18명의 학생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아래 <표 1>과 같이 180명 이었다.

<표 1> 연구 대상

구분	5학년	6학년	계
남	52	39	91
여	51	38	89
계	103	77	180

#### 2. 측정 도구

가. 아동용 심리유형검사(MMTIC)

성인용 성격유형 검사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가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듯이, 청소년 및 어린이 성격유형검사(MMTIC) 역시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1990년

#### 나. 자아탄력성 검사

자아탄력성 검사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적응유연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유성경·홍세희·최보운(2004)이 번안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탄력성은 최소 14점에서 최고 56점까지 산출되며, 점수가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2007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연구 대상자를 선정한 후 2월12일부터 15일까지 연구자와 MMTIC 사용 자격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MMTIC를 실시하였다. 검사 전 MMTIC의 의미, 성격에 대한 설명, 검사에 답하는 요령을 알려준 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아탄력성에 검사는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검사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각 담임교사가 실시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 4. 분석 방법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격유형의 선호경향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와 심리적 기질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ANOVA)을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MMTIC 성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MMTIC을 실시하고 자아탄력성을 검사하였다. 이에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성격유형을 살펴보고, 이후 성격유형을 선호경향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와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각각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심리 선호유형에 따른 자아 탄력성 차이 검증

연구대상의 성격유형 선호경향 분포와 그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판단형-인식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지표에 따른 외향형-내향형,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의 선호유형 간에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직관형이 감각형에 비해, 감정형이 사고형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형과 인식형 간에는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 탄력성의 차이

성격유형의 심리적 기능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검증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네 가지 기능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 점수는 직관적 감정형(NF) > 감각적 감정형(SF) > 감각적 사고형(ST) > 직관적 사고형(NT) 순이었다. 즉, 직관적 감정형의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감각적 감정형, 감각적 사고형 순이었으며, 직관적 사고형이 자아탄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7.90, P<.001).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2> 성격유형 선호경향별 차이 검증

선호경향	N(%)	M(SD)	F
E(외향형)	131 (72.8)	42.04 (5.25)	26.35***
I(내향형)	49 (27.2)	37.27 (6.30)	
S(감각형)	97 (53.9)	39.80 (5.67)	5.35*
N(직관형)	83 (46.1)	41.83 (6.08)	
T(사고형)	135 (25.0)	38.42 (6.22)	9.59**
F(감정형)	45 (75.0)	41.51 (5.65)	
J(판단형)	23 (12.8)	38.65 (4.96)	3.30
P(인식형)	157 (87.2)	41.04 (6.02)	
전체	180(100.0)		

\*\*\*P < .001 \*\*P < .01 \*P < .05

<표 3>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검증

심리적 기능	N (%)	M(SD)	F
ST (감각적 사고형)	24(13.3)	39.33(5.50)	7.90***
SF (감각적 감정형)	73(40.6)	39.96(5.75)	
NT (직관적 사고형)	21(11.7)	37.38(6.94)	
NF (직관적 감정형)	62(34.4)	43.34(4.98)	

\*\*\*P < .001



<표 4>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 점수 차이의 scheffe 사후검정

기능유형	NT	ST	SF	NF
NT(직관적 사고형)		1.95	2.58	-5.96*
ST(감각적 사고형)			-0.63	-4.01*
SF(감각적 감정형)				-3.38*
NF(직관적 감정형)				

\* $p < .05$

<표 4>에 의하면 직관적 감정형의 자아탄력성은 감각적 감정형, 감각적 사고형, 직관적 사고형 각각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직관적 감정형이 다른 세 집단 보다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관적 감정형을 제외한 감각적 사고형, 감각적 감정형, 직관적 사고형 간에는 자아탄력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수영구와 해운대구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아동용 심리유형검사(MMTIC)를 실시하여 심리유형을 측정하였으며,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적응유연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유성경 외(2004)가 번안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동의 심리적 선호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내향형이 외향형 보다, 직관형이 감각형 보다, 감정형이 사고형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판단형과 인식형은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기능유형에 따라 직관적 감정형(NF)이 다른 세 가지 유형, 감각적 감정형(SF), 감

각적 사고형(ST), 직관적 사고형(NT)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호성향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에 관해서이다. 먼저, 외향성과 내향성에 있어서 외향적인 아동들이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는(김정택·심혜숙, 1993) 외향형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향성의 특성은 여성우(1999)와 조건국(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외향성이 높을수록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김주한(1992) 역시 사회성·명랑성의 성격특성을 가진 외향성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내향성은 인식을 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초점을 두며, 주위와 떨어져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데(김정택·심혜숙, 1993) 이러한 특성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심각하고 깊게 받아들임으로서 문제상황으로 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내향성의 특성은 외향성보다 유의미하게 우울척도가 높다는 김주형(2001)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향성(김대권, 2004)이라는 측면에서 귀인을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내향성에 비해 외부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외향성의 태도가 스트레스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자아탄력성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직관형은 감각형의 아동에 비해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미래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을 통해 이겨내기 보다는 그 자체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해결 자체를 필연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해경(2003)의 연구에서도 직관형이 감각형보다 학교

생활 전체에서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감정형의 아동은 사고형에 비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경향(김정택·심혜숙, 1993)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이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적응하고 수월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감정형은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졌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사고형은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자 하는 경향(김정택·심혜숙, 1993)으로 인해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이 유발될 수 있어 자신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그 상처가 대부분 자신에게 돌아오고 이러한 상황의 연속을 야기시킴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기저임을 감안할 때 감정형이 사고형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학업성취의 결과에 비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고형의 아동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학교 환경으로 인해 감정형에 비해서 학교 생활에 만족을 덜 느낄 것이다(이주형, 2001). 실제로 학교적응도 감정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1996). 결국 이러한 사고형의 부적응 및 낮은 스트레스 능력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의 자아탄력성이 감정형에 비해 낮기 때문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단형 아동과 인식형 아동의 자아탄력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형은 계획과 질서에 따른 구조화된 생활양식을 선호하며, 인식형은 유연성을 지니고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송영경, 2006).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아니라 선호하는 생활

양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상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 혹은 성인의 성격적 특성과도 일치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향형과 감정형의 특징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적 성격특징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Block과 Block(1980)이 기술한 특징 중 정서표현의 적절성, 자기수용, 공감과, Klohnen(1996)이 대인관계의 통찰력, 따뜻함, 양육, 내적지지, 능숙한 표현, 친근감, 그리고 윤현희(1998)가 제안한 타인에 대해 공감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 등은 감정형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외향형의 특징과 일치한 특성으로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활동성(Klohnen, 1996), 넘치는 에너지(Robin, et al, 1996) 등이 있다.

따라서 앞선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던 성격적 특징과 본 연구 결과 얻어진 결과를 통해 외향형과 감정형은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특성임을 예측하게 한다.

둘째, 기능유형에 관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관적 감정형(NF)이 다른 세 가지 유형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직관적 감정형은 문제 해결을 원인과 결과가 지닌 가능성에 대해 통찰하는 객관적 분석을 통해 처리한다(김지혜, 2006). 또한 개별적 관계를 중시(김정택·심혜숙, 1993)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상황에서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는 직관적 감정형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이해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다.

직관적 감정형은 학교환경요인에 적응도가 높고, 교우관계 요인에서 적응도가 높아(이혜경, 2003) 다른 기능유형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관적 감정형은 개별적인

또래관계를 중시하며 의사소통에 능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여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고 매우 친절하여 다른 사람의 좋은 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성 있게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선호경향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미 예측가능하나 사실이다. 감각형보다 직관형이 사고형보다 감정형이 자아탄력성의 점수가 높았으므로 직관적 감정형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단, 직관적 감정형(NF) > 감각적 감정형(SF) > 감각적 사고형(ST) > 직관적 사고형(NT) 순으로 자아탄력성 점수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만 하다. 즉, 두 가지 감정형의 점수가 나머지 사고형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직관적 사고형의 점수가 가장 낮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직관형과, 감정형이 감각형과 사고형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다면, 직관적 감정형의 점수가 가장 높고, 감각적 사고형의 점수가 가장 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결과는 직관적 사고형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직관적 사고형(NT)의 경우 능력과 자질, 재능, 지시축적을 중요시하고, 지속적인 자기점검과 의심, 자기 비판적이며, 일관된 법칙이나 속박을 싫어하고 관심의 초점이 미래에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잘 느끼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선호경향의 조합으로 나타난 기능유형의 특성은 단순한 선호경향의 특성의 합 이상의 독특한 각각의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를 더욱 실감하게 한다.

이제까지 살펴 본 결과에 기초하여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성격은 연습이나 훈련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성격적 특성이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내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사고형인 아동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교육프로그램은 아동의 특성을 배제한 채, 기르고자 하는 기능의 하위 요인만을 추출하여 그 기능을 연습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경우 이러한 기능적 특성 보다는 성격적, 기질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성격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각 성격적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선호 성향에 따른 집단의 구분에 따른 자아탄력성 평균에서 내향형 집단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내향성, 판단형과 인식형 두 차원은 부기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감각/직관, 사고/감정 중심으로 성격을 구분하였으나, 실제로 내향형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점은 주목해 볼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사고형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낮았다. 사고형의 점수가 낮은 것은 기능유형의 구분에서 사고형의 두 가지 유형(ST, NT)이 감정형(NF, SF) 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낮은 것을 통해서도 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표 3> 참조).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내향형의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특성과 사고형의 경직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특성을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고은정(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진(2005).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와 매개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2002).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 생활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형모(2000). 자아탄력 집단의 성격특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형모·황순택·김지혜(2001).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 권지혜(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1998). 개인특성과 의사결정유형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선(2005). 초등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희(1996). MMTIC에 의한 아동의 성격유형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06).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 조절학습, 학업적 실패내성 및 학교 적응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심혜숙(1993).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MMTIC)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심혜숙·제석봉(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송영경(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우(1999). 아동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홍세희·최보운(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윤현희(1998). 부모보고형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03). MMTIC 성격유형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여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현(2003). 아동용 심리유형검사(MMTIC)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희(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 조건국(2000). 초등학교 아동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유형 및 대처양식의 관계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lock, J.(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5.
- Block, J. H. · H.(1980).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the Child Psychology, 13, 39~101.
- Block, J. · A. M.(1996).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emotion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icchetti · Toth Models and integrations(1991).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Murphy, L. B. · A. E.(1976). Morianity, Vulnerability, coping and growth : Form infancy go adolesc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Robin, W. · O.P.John · A.Caspi · T.E.Moffitt · M.(1996). Stouthamer-Lpeber "Resilient, over 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171.
- Sharon M. D.(1999). Change : Loss Opportunity, and Resil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ve Service Publication.
- Tellegen, A.(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A. H. Tuma · J. D. Maser(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681~706, Hillsdale, NJ: Erlbaum.
- Vander, et al.,(1985). Human a Physiology, McGraw-hill, 636~640.